

어명소 제2차관, “버스 안전사고 적극적 예방대책” 주문

- 19일 관계기관 긴급 안전 대책회의 주재... 버스 안전 강화방안 논의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19일(월) 오후 3시 국가철도공단에서 교육부, 경찰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교통공단, 전국버스연합회, 전국전세버스연합회, 고속버스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‘버스 안전 긴급 대책회의’를 주재하여 기관별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.
 -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6일(금) 오후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등 7중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.
- 어 차관은 “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정부, 관계기관이 노력하였음에도, 코로나-19 방역규제 해제로 버스 운행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용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(1~5월) 약 30%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,
 - 버스업계에는 “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명감으로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 또한, “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, 버스 정비를 철저히 하고, 운수종사자에 대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휴식 부여와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에는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여름 휴가철 합동단속을, 교육부에는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과 같은 외부이동 시 대열운행 예방을 위한 일정 관리, 안전띠 착용 등 안전의무 협조를 요청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버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①디지털운행기록계(DTG)의 분석을 통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, ②2018년 이전 출시된 사업용 버스에 대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을 적극 권고하며, ③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대비한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고, ④대열운행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기로 하였다.

2023. 6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